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마지막 미션들

-복음으로 여는 베드로후서-

창세기 45:5-8, 베드로후서 1:5-7

정운돈 목사님

* **창45:5-8**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 **벡후1:5-7**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다. 개혁은 Reformation,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성경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전혀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제들까지 용서하였다. 이것이 참 성경말씀이고 복음인데 원수를 갚아야 하니까 싸움, 전쟁,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믿음이 없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응답을 주실 수 없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그 현장이 교회, 예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 예배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시작이고 끝이고 모든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자이다.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이다. 참된 행복자, 성공자,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결론난 사람이 하나가 되면 성장할 것이 많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붙잡을 것을 주었다. 이 모습은 신앙생활의 절대목표이며 절대망대이다.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절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8 가지 단계를 미션으로 주시면서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있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 장 14 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드로는 그 순교의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베드로의 부족했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막으로 부탁했던 미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미션들은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망대’라고 볼 수 있다.

1.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1)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다.

(2)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3) 베드로는 믿음의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4 장 28 절에서 31 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금방 의심했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도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손을 끝까지 잡아 주실 줄 믿는다. 이것이 W.I.O(With, Immanuel, Oneness)의 은혜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랍넌트로 부르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4)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꾸지람을 받기도 하였다. 마가복음 8 장 33 절을 함께 보겠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는가.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러한 말을 들었을까? 그 이유는, 사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거의 잘 모르고 희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눈치는 챘던 것 같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한다. 이것을 영감(영적인 감각)이라고 한다. 영적인 결정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작은 구름 같은, 작은 세밀한 음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언약, 절대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5) 또한 베드로는 오직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충만을 받은 후 순교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과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꾸지람을 받기도 하였다. 갈라디아서 2

장 14 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케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역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직복음, 성령충만의 체질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6) 베드로는 말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사도행전 5 장 29 절 말씀을 보겠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축원드리겠다.

2. 두 번째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신앙생활에 대한 미션들을 알아보겠다. 우리들은 죽는 날까지 항상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완전한 삶과 거룩한 삶을 위해 도전해야 한다.

(1)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성장해야 할 단계를 미션으로 주셨다. 이 단계는 신앙성장의 8 가지 망대이다. 베드로전서 1 장 5 절에서 7 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신앙성장 단계의 8 가지 절대망대는 ① 믿음 ② 덕 ③ 지식 ④ 절제 ⑤ 인내 ⑥ 경건 ⑦ 형제우애 ⑧ 사랑(아가페)이다.

(2) 두 번째 미션은 거짓선지자와 사이비종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2 장 1 절에서 3 절을 보겠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첫째는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 증인과 같은 단체이다. 성삼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호색하는 것이다. 통일교와 JMS 와 같은 집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물질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이다. 신천지, 통일교 등 모든 사이비이단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세 번째 미션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으라는 것이다. 당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

지 말라는 미션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3 장 3 절에서 4 절의 말씀을 보겠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1 장 11 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종말이 있듯이 이 지구와 인류에도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죽음도 종말도 심판도 없을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정욕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깊이 따져보면 타락하고 방탕하고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커버넌트), 복음과 언약의 망대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목표이고, 절대망대이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거듭나야 하겠다.

2. Vision, 비전 망대이다. 우리들의 절대 비전은 복음과 말씀으로 237 나라, 5 천 종족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과 삶까지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3. Dream, 드림 망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성도들과 후대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24 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 망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배와 말씀과 훈련에 조금만 집중해도 3.9.3 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실현 망대이다.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미션에 도전해보기를 바란다. 영원히 남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다.

끝으로 베드로 사도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현장에 세팅하여 237 나라 5 천 종족들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주시고 참사랑교회로 인도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세 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참복음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개혁신앙의 언약의 대열에 들게 하셨사오니, 정말로 237 나라 땅 끝까지 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작품을 남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